

제 260호 · 2014년 6월 11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South Carolina 항만당국, Charleston항 냉장창고 확장 및 재정 지원 승인
2. 지난 10년간 아시아지역 에너지 운송 선박사고, 일본 총 20건으로 최다
3. 중국, P3 얼라이언스의 승인 결정
4. DB International, 인도 진출

물류시장동향

1. Maersk,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대비 인도네시아 서비스 확대 시사
2. Prologis, 중국내 41,500m² 맞춤형(Build-to-Suit) 물류센터 개발계약 체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South Carolina 항만당국, Charleston항 냉장창고 확장 및 재정 지원 승인

- 주요 냉장창고 회사들이 해외 사업 기회로 인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New Orleans Cold Storage(NOCS)사가 Charleston항에 있는 냉장창고 확장계획을 발표함
 - NOCS사는 New Orleans의 2개, Houston의 1개를 포함해 미국 내 3개 지역에 냉장창고 설비를 가지고 있음
 - NOCS사는 현재 Charleston항 NOCS South Atlantic에 55,000m²의 냉동창고와 하루 640,000 파운드(290톤)를 급속 냉동시키는 설비를 가지고 있음
- Charleston항의 South Carolina 항만당국은 최근 냉장화물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NOCS사의 냉장창고 확장계획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승인함
 - NOCS사는 Charleston항의 냉장창고를 2배 이상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되는 투자비는 1,400만 달러 이상이며 이 중 1,200만 달러를 South Carolina 항만당국이 지원함
 - 이 냉장창고 회사의 CEO인 Mark Blanchard씨는 “우리 회사의 창고 크기는 150% 이상, 급속 냉동시설도 100% 확대되어, 미래에도 냉장식품 공급 시장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힘
- NOCS사의 Blanchard씨는 이번 확장을 통해 국제 냉장 식품 산업(International Refrigerated Food Industries)에서 가장 큰 물류 및 냉장창고 공급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확장을 통해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해산물, 채소 등 냉장식품을 취급·공급할뿐만 아니라 30년 이상된 현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NOCS사의 냉장창고 설비는 수입보다는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이번에 확장되는 창고설비는 호주, 뉴질랜드, 중미, 남미로부터 수입되는 육류를 처리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회사 대변인이 밝힘
- Charleston항은 2011 회계연도에 57,139TEU, 2012년 72,730TEU, 2013년 71,445TEU를 처리했는데, 2014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68,845TEU를 처리하는 등 냉장화물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만당국은 이번 냉장창고 확장으로 더 많은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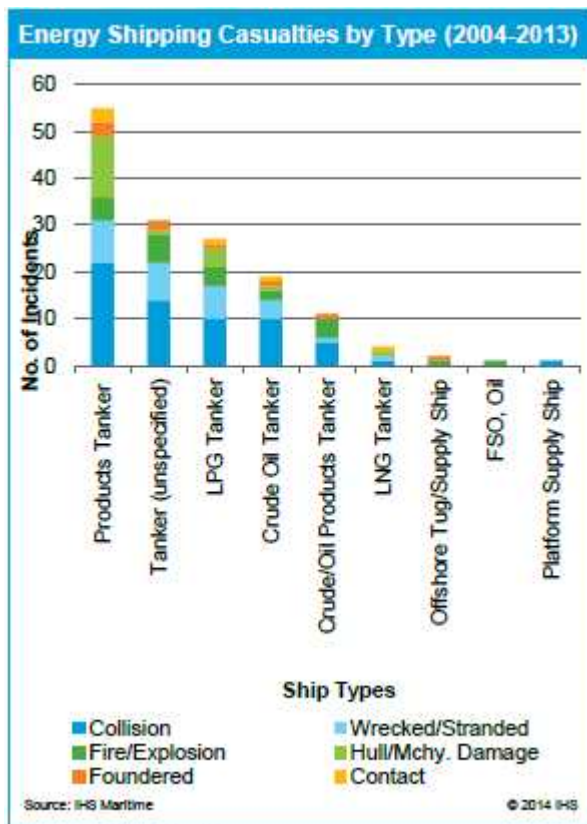
자료 : www.joc.com, 2014.6.3.

이연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 지난 10년간 아시아지역 에너지 운송 선박사고, 일본 총 20건으로 최다

-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 발생한 에너지 운송 선박사고의 10%가 일본 국적선에 의한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밝혀짐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제적인 에너지·전력·물류 조사기관인 IHS Maritime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29일 발생한 일본 유조선 쇼코마루호의 해상화재 및 폭발침몰 사고였음
-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 선박사고 1,600 건 중 에너지 운송관련 선박사고는 154건 발생
- 이중 일본 국적선에 의한 선박사고는 총 20건으로서 '최다'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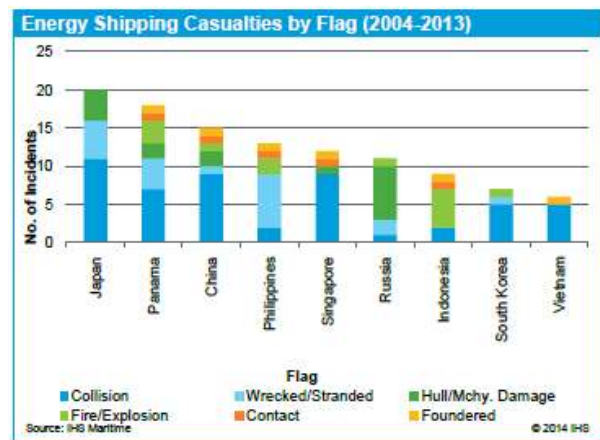
선박유형별 에너지 운송사고(2004-2013)



Source: IHS Maritime

자료 : www.ihsmaritime.wordpress.com

선적별 에너지 운송사고(2004-2013)



Source: IHS Maritime

자료 : www.ihsmaritime.wordpress.com

- 아시아에서 에너지 운송 선박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은 말라카해협, 동중국해, 일본 및 필리핀으로 조사됨
- IHS는 이들 지역에서 선박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말라카 해협 등 해당 지점의 선박 교통량이 다른 지점에 비해 현저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한편 IHS Maritime에 따르면 사고 건 수가 가장 많은 선박 유형은 유류제품 운반선으로, 전체 사고 건 수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원유 운송 유조선 사고는 총 19건으로, 전체적으로 선박 안전 부문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충돌 또는 좌초에 의한 것으로, 5월 29일 발생한 쇼코마루 호의 해상 화재에 의한 폭발침몰 사고는 매우 드문 유형에 속함
 - * 에너지 운송선박 사고 유형: 충돌, 접촉, 화재(폭발), 침수, 선체 손상, 좌초 및 기타 사고
 - * 원유 운송 유조선의 화재(폭발) 사고가 적은 이유는 원유의 낮은 가연성 때문

자료 : www.ihsmaritime.com. 2014.5.29.

박성준 전문 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 중국, P3 얼라이언스의 승인 결정

- 중국은 세계 주요 선사인 P3 얼라이언스 승인을 올해 가을 전에 시행시키기로 결정함
 - P3는 덴마크의 머스크와 스위스 MSC, 프랑스 CMA CGM으로 구성됨
 - EU 당국은 P3 얼라이언스의 반독점 규제 이슈에 대해 제소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미국도 승인을 해준 현 시점에서 중국의 승인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P3는 선박 공유와 공동운항 등을 통해 세계 정기선항로를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승인도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승인이 완료 되면 P3가 유럽에서 부터 아시아와 태평양을 오가는 항로의 40% 이상을 독차지 할 것으로 예상됨
 - 머스크 관계자는 중국과 P3의 승인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 없이 순조롭게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히면서 중국의 승인 여부 결정이 시간 문제라고 밝힘
 - 항공사 간의 코드쉐어링과 같은 맥락에서 P3의 연합은 화물 배송의 신속함과 저렴함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P3 얼라이언스는 225척의 선박을 공동으로 이용 및 재배치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공유하는 컨테이너 수송능력은 260만TEU임
- 이에 따라 중소형 해운기업들의 해상 운임 협상력이 대폭 축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유류 공급자들도 공급가격 협상 입지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자료 : www.cargonewsasia.com, 2014.6.5.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 DB International, 인도 진출

- 독일의 철도인프라 개발계획, 구축 및 운영 전문 기업인 DB International은 최근 인도의 철도인프라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음
- DB International은 인도 Kochi 메트로의 전장 26km가 넘는 고가 레일과 21개의 지하철 역사, 1개의 정비차고의 품질 및 안전 분야 컨설턴트 역할을 위임
 - 이 철도의 전력은 직류 750볼트 형태로 공급되는 제3레일방식임
 - 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부터 진행 되었음
- DB International은 인도 방갈로르(Bangalor)에 지사를 열어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음
 - DB International의 전문기술을 통해 인도시장의 고객 및 기타 프로젝트 등 철도건설 분야의 전문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DB International 관리감독위원회 Niko Warbanoff 회장은 “DB International의 인도 진출은 DB International의 세계화와 인도 시장 상승세의 관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DB International은 수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기술과 명성을 갖고 있으며, DB International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 전문 지식을 인도 철도인프라 구축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함
- 현재 인도는 경제 성장 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프라 확장을 설정하였음
 - 인도측의 고품질 철도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향후 10년간 약 200억유로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 이 외에도 새로운 노선의 구축, 고속수송을 위한 기존 노선의 개선, 철도 화물 운송, S-Bahn(독일의 도시고속 전철) 고속 수송 열차와 U-Bahn(독일 지하철) 지하철을 도입할 계획임

자료 : railandroad.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4.5.27.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 Maersk,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대비 인도네시아 서비스 확대 시사

- Maersk는 내년 말 출범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앞서 아세안지역 해운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음
 - AEC지역의 대다수 수송 서비스가 바다를 이용한 해상수송이기 때문에, AEC의 출범은 Maersk를 포함한 해운기업이 아세안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Maersk는 이미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선적한 화물을 메인허브항만인 말레이시아 Tanjung Pelepas항을 거쳐 전세계로 운송하는 직항서비스의 개설로 동인도네시아의 수출 증가를 경험했음
 - Maersk의 무역&마케팅 총괄 Muhammad Sofyan 매니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규모 항만인 Bitung항을 출발하는 수송서비스는 잘 갖춰진 해상 네트워크와 고정적인 물동량으로 장기적으로 서비스가 지속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상태라고 언급함
 - Maersk는 향후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Bitung항 이외에 다른 항로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AEC 출범 이후에는 해상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 : www.thejakartapost.com, 2014.6.6.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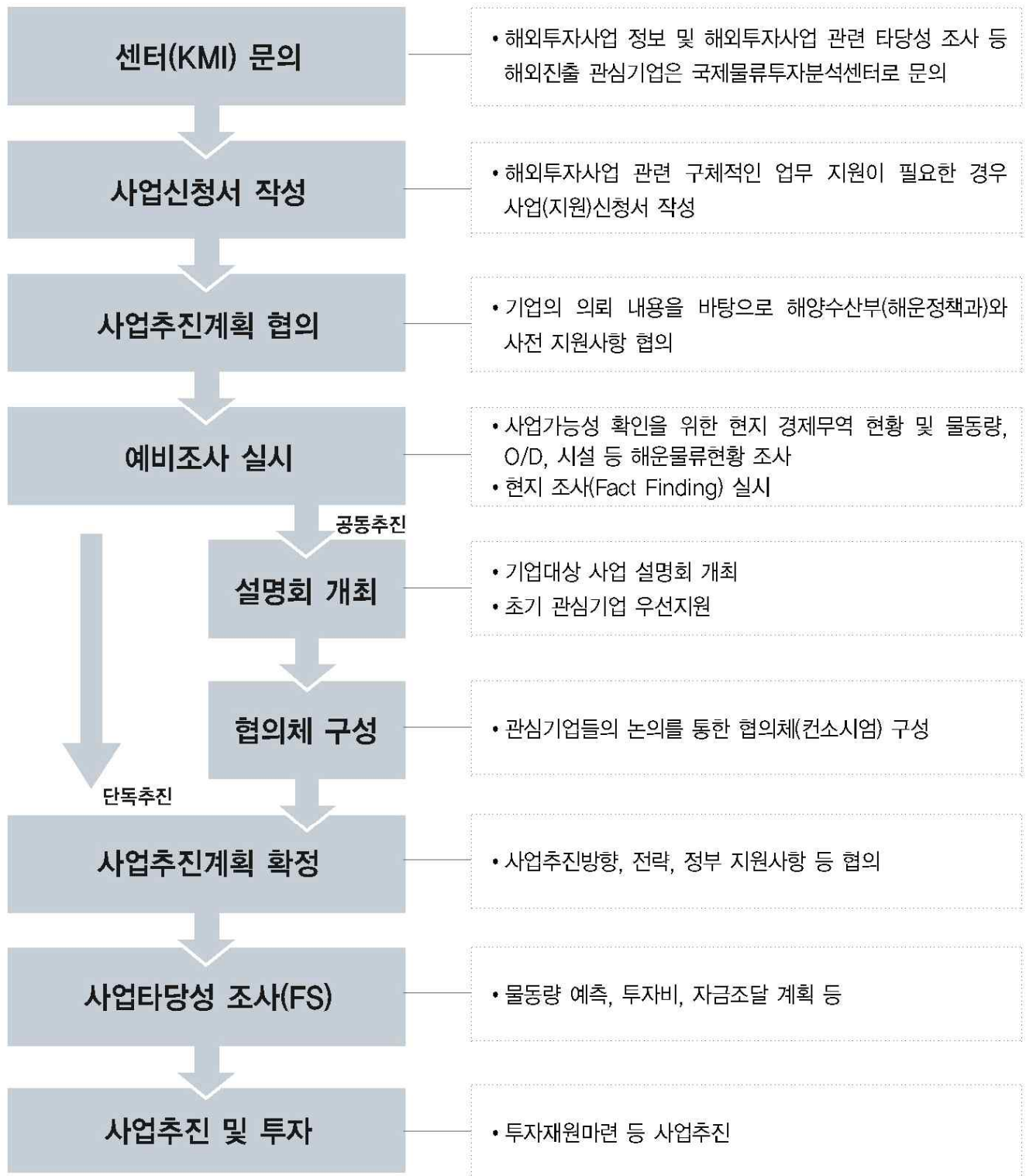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Prologis, 중국내 41,500m² 맞춤형(Build-to-Suit) 물류센터 개발계약 체결

-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선도하는 프로로지스(Prologis)가 중국의 덕방(Deppon) 물류회사와 맞춤형(Build-to-Suit) 물류센터 개발계약을 체결함
 - 이 시설은 프로로지스(Prologis)의 텐진(Tianjin) 닝허(Ninghe) 물류센터에 위치할 예정이며, 베이징 지역의 유통센터 역할을 하게 됨
 - 이로 인해 중국 물류회사 덕방(Deppon)의 플랫폼은 130,000m² 이상으로 확장됨
 - 덕방(Deppon)의 리우 동(Liu Dong) 부사장은 프로로지스(Prologis)와의 맞춤형 물류센터를 통해 향상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함
-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프로로지스(Prologis)의 4번째 맞춤형(Build-to-Suit) 물류센터프로젝트이며, 중국의 물류 인프라 개선이 목적임
 - 프로로지스(Prologis)와 덕방(Deppon)은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유통시설을 개발 중임
 - 2014년 3월 31일 이후 프로로지스(Prologis)는 중국내 650,000m²의 물류 및 유통시설을 소유, 관리하게 됨

자료 : transportinfrastructure.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4.5.30.

김은미 연구원 (☎ 02-2105-2835, usea1004@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